류현진, 사이영상 예측 순위서 모두 1위

ESPN·톰 탱고 사이트서 74.9점 내셔널리그 1위
2위 다저스 투수 '켄리 얀선'에 포인트 크게 앞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3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으로 승승장구하는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투수 최고의 영예인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 1위를 질주했다.

류현진은 20일 현재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ESPN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 74.9점을 획득해 내셔널리그 1위를 질주했다.

2위는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켄리 얀선(61.6점)으로 류현진보다 크게 뒤처진다.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다승(6승) 공동 1위, 평균자책점 1위(1.52), 이닝당출루허용률(WHIP·0.74) 1위, 탈삼진/볼넷 비율 압도적 1위(14.75)를 달린다.

성적에 걸맞게 ESPN 사이영상 예측에서도 선두를 지켰다.

투구이닝, 자책점, 탈삼진, 승패 수 등을 복잡한 공식에 대입하고, 소속팀이 지구 1위를 달리면 승리 보너스 12점을 추가로 얻는다.

투수 개인도 잘 던지고, 팀도 잘 나가야 사이영상 예측 지수에서도 득을 본다.

사이영상이 사실상 선발 투수의 전유물이라고 볼 때 얀선을 제외하고 루이스 카스티요(신시내티 레즈·55.6점), 잭 그레인키(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55.1점), 잭 데이비스(밀워키 브루어스·53.3점) 등을 현재 류현진의 경쟁자로 볼 수 있다.

류현진은 또 다른 사이영상 예측 트래커인 톰 탱고 사이영상 포인트에서도 내셔널리그 1위에 올랐다.

야구 통계 전문가 톰 탱고가 고안한 사이영상 포인트 계산법은 ESPN 공식보다 단순하다.

먼저 투구 이닝을 2로 나눈 수치에서 자책점을 뺀다. 또 탈삼진을 10으로 나눈 수치와 승수 등 세 항목을 더해 점수를 계산한다.

류현진은 59⅓이닝을 던지고 자책점 10점을 기록했다. 삼진은 59개를 낚았다.

공식에대입하면류현진은(59⅓이닝/2-10)+(59/10)+6으로 31.6점을 얻는다. 이는 카스티요(30.4점), 데이비스(25.9점),그레인키(24.5점)보다도높다.

공식의 특성상 많은 이닝을 던지고, 자책점을 적게 남기고, 탈삼진과 승수가 높을수록 톰 탱고 포인트에서 고득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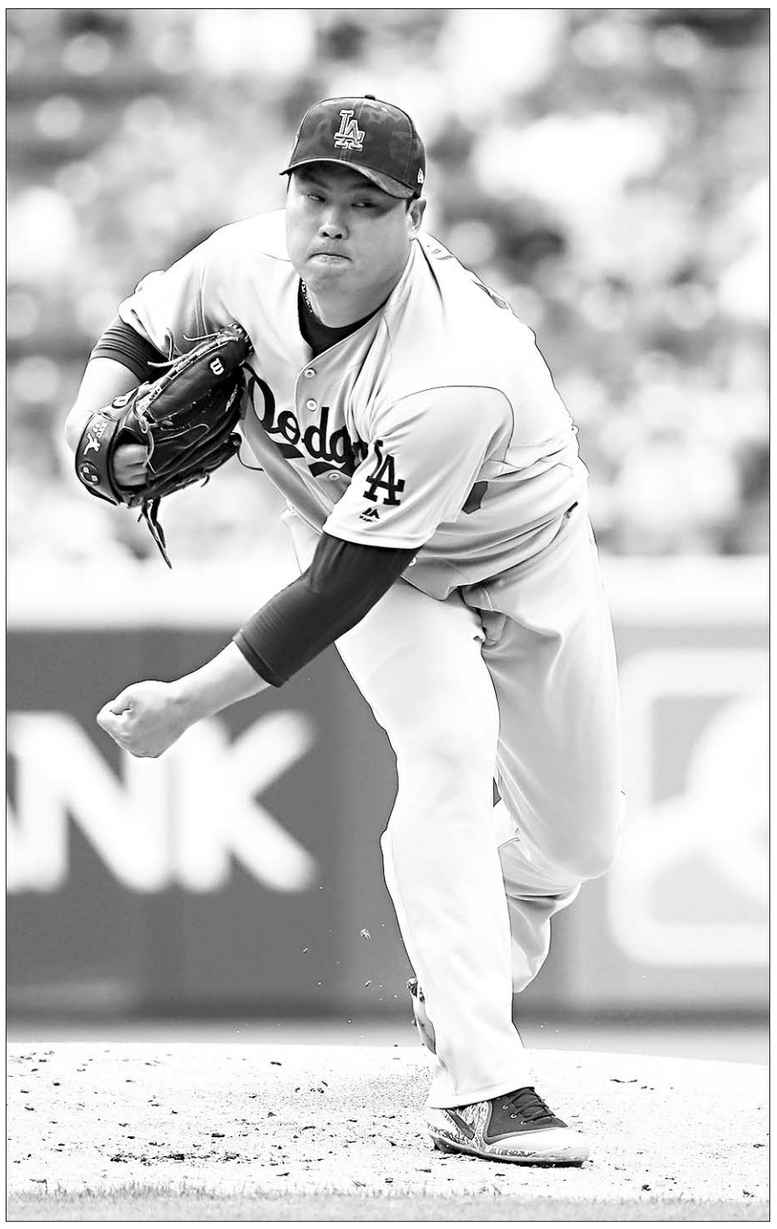
한 통계 사이트는 톰 탱고 사이영상 포인트가 2006년 이래 사이영상 수상자 예측에서 ESPN 사이영 포인트보다 더 나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평했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시즌 후 1위표, 2위표 등에 가중치를 둬 그해 양대리그 사이영상 수상자를 투표로 결정한다.

류현진은 야구통계 전문가 빌 제임스의 또 다른 통계인 시즌 점수에서도 내셔널리그 1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시즌 점수에서도 109.7점을 획득해 카스티요(97.8점)와 그레인키(95.3점)를 눌렀다.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좌완 선발 류현진이 지난 2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아약스(네덜란드)와의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원정경기 중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상대 선수들을 제치며 공을 차고 있다. /AFP=연합뉴스

英 매체, 손흥민…"올 시즌 수훈 선수"

리그·UCL 오가며 20골 맹활약…시즌 평점 8점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영국 매체가 매긴 시즌 평점에서 토트넘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018-2019시즌 토트넘 선수단과 감독에 평점을 매기고 "손흥민과 무사 시소코가 이번 시즌 가장 빛났다"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올해 기억에 남을 만한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비록 2, 3월 부진으로 리그 우승 경쟁에서는 밀려났지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토트넘이 거둔 성과는 대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 팀 내 수훈 선수"라며 "주전 공격수 해리 케인의 부상 이후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20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표팀 소속으로 두 개의 국제대회를 치르면서도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손흥민에게 시즌 평점 8점을 부여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정규리그 12골, FA컵 1골, 리그컵 3골, UEFA 챔피언스리그 4골을 합쳐 20골을 터뜨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19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그는 체력적으로 지친 상황에서도 2016-2017시즌 작성한 자신의 역대 한 시즌 최다 골(21골)에 근접한 기록을 올렸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졌다.

강호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상대로 펼친 8강에서 손흥민은 1, 2차전 합계 3골을 몰아쳐 팀의 4강 진출에 앞장섰다.

도르트문트(독일)와의 16강전에서도 1골을 넣은 그는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개인 통산 12골 고지를 밟아 막심 샤츠키흐(우즈베키스탄·11골)를 제치고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골 기록을 세웠다.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이 최고 평점을 받았지만, 팀 전체에서는 손흥민을 앞지른 사람이 한명 있었다.

평점 9점을 받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주인공이었다.

인디펜던트는 "올해 토트넘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며 "선수 영입도 없었고 새 구장 완공도 늦춰졌으며 선수 부상까지 줄줄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포체티노 감독은 팀을 리그 '톱4'로 이끌고 사상 첫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놨다"고 칭찬했다.

이 매체는 "포체티노가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구단들의 영입 제안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 출전해 1회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멀티히트' 추신수, 시즌 타율 0.296

1번 타자 좌익수 출전…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2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작성하며 물오른 타격감을 자랑했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2루타 1개를 포함해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다.

전날 경기에서 홈런 1개, 2루타 1개로 멀티히트를 기록한 추신수는 이날도 장타를 추가하며 2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신고했다. 시즌 타율은 0.293에서 0.296(162타수 48안타)으로 올랐고, 시즌 19타점째를 수확했다.

또 추신수는 11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펼치며 출루율 0.397을 기록했다.

텍사스는 시애틀의 막판 추격을 힘겹게 따돌리고 10-9 진땀승을 거뒀다. 텍사스는 2연승 속에 22승 23패를 기록하며 5할 승률 복귀를 바라보게 됐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시애틀 선발 마이크 리크의 초구 싱커를 공략해 좌전 안타를 쳐낸 뒤 좌익수 도밍고 산타나가 타구를 더듬는 틈을 타 2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대니 산타나의 우전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2회말 무사 2루에서 좌익수 직선타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말 1사 2루에서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2루타로 2루 주자 로널드 구스만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일찌감치 멀티히트를 완성한 추신수는 6회말 1사, 8회말 1사에서 모두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수비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추신수는 팀이 10-2로 앞선 8회초 1사 1루에서 시애틀 산타나의 빗맞은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포구하려고 했으나 타구는 글러브를 스치고 떨어졌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아쉬운 수비 속에 시애틀의 팀 베컴에게 좌중월 만루 홈런을 얻어맞고 4점 차로 쫓겼다.

9회초에도 3점을 내주며 역전 위기에 몰렸지만 다행히 마지막 타자 베컴을 내야 땅볼로 처리하고 1점 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연합뉴스

US여자오픈 출전자 15%가 한국인

박인비, 5가지 방법으로 중복 출전권 획득

여자골프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총상금 500만 달러)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미국골프협회(USGA)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는 30일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찰스턴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제74회 US여자오픈 출전자 149명 중 23명이 한국 선수다.

현재 이번 대회에 출전을 확정한 선수는 28개국 출신 149명이다.

출전을 확정한 선수 중 미국 선수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이 23명으로 뒤를 잇는다. 일본은 12명, 태국 9명, 잉글랜드와 호주에서 각각 7명이 출전한다.

1번카테고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이내대회우승자'다. 여기에는2009년 우승자지은희를비롯해최나연(2011년), 유소연(2012년),박인비(2008·2013년),전인지(2015년),박성현(2017년)까지6명의한국선수가포함된다.

양희영 등 17명은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 상위 75명에 들어가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밖에 지난해 유럽여자골프투어(LET),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상금랭킹 상위 5명이 출전권을 가져간다.

KLPGA 투어에서는 지난해 상금왕 이정은과 이소영 등이 자격을 얻었다. 김지현(한화)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10위를 차지, 공동 10위 이내 선수에게 제공하는 출전권을 따냈다.

아마추어 전지원은 2018 US여자아마추어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출전권을 얻었다. 지난 4월 인천 드림파크에서 열린 섹셔널 퀄리파잉을 1·2위로 통과한 정지유와 마다솜(아마추어)도 US여자오픈에 출전한다.

골프여제 박인비(사진)는 US여자오픈 무려 5개의 항목에서 중복 출전권을 따는 위용을 과시했다.

박인비는 10년 이내 우승자는 물론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4년 이내 우승자(2013·2014·2015년), 브리티시여자오픈 5년 이내 우승자(2015년), LPGA 투어 공동 주관 대회 우승자, 지난해 LPGA 투어 상금 랭킹 75위 등 5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

박인비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타이틀을 두 번이나 차지해서 영광이었다"며 "코스 난도가 높은 대회인 만큼 미리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성취감도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